


네이버 MY플레이스를 알게 된 이후로 리뷰는 대부분 그쪽에 쓰고 있는데, 이게 리뷰 작성을 위해서는 영수증 인증이 필요하다. 얻어먹거나 깜빡해서 영수증을 받아오지 못한 식당 리뷰는 블로그에 남겨보려고 한다. 내 MY플레이스 리뷰를 보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https://m.place.naver.com/my/5f9fc5bcb40638c1575a0068/review?v=2>



**c2lv님의 MY플레이스**

75개의 리뷰에서 내 취향의 장소를 발견해보세요!

[m.place.naver.com](https://m.place.naver.com)

**크레이지카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2나길 44, 2층

대학 후배가 먼저 밥 먹자고 연락이 와서 지난주 7월 4일 크레이지카츠에서 밥을 먹고 왔다. 사실 돈까스 맛집이라고 해서 예전에 가자고 약속을 잡았었는데, 취소되고 유아무야로 끝났었다. 후배가 먹어본 돈까스 중에 가장 맛있었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갔다.

가게에 12시쯤 도착해서 1시간 반 정도 웨이팅을 했는데, 날이 더워서 고생을 좀 했다. 그나마 대화 상대가 있어서 시간이 금방 갔다. 가게 앞 터치 패널로 대기를 걸어두고 기다리는 방식이다. 기다리는 동안 테이블링 카카오톡으로 대기번호와 앞 대기 팀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들어갈 차례 되면 직원분께서 주문 미리 받아주시고 입장 가능할 때 불러주신다.



찍은 사진들이 영양가가 없다. ㅋㅋㅋ 메뉴판 찍은 것도 없고 딱 네 장 있다.

물은 투명해 보이는데 마셔보니 녹차 맛이 나길래 신기해서 찍었다. 자세히 보니 색이 있긴 있었는데 연해서 잘 안 보였다.



남자 둘이서 모듬정식(로스+히레+멘치) 두 개와 냉모밀 하나 그리고 레몬 하이볼 두 잔을 주문했다. 로스는 등심, 히레는 안심, 멘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간 것의 혼합이다. 일본 음식이니까 일본어로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한국어와 혼용되어 쓰이다 보니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

음식이 나오면 직원분께서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 핑크 솔트는 접시에 뿌려서 돈까스를 찍어 먹으면 되고, 이 가게는 와사비 대신에 연겨자를 제공하니 돈까스랑 같이 먹으면 된다. 소스는 세 가지 있는데 가운데가 샐러드 소스고 나머지가 돈까스 소스다 뭐 이런 얘기.

확실히 맛있었다. 이런 느낌으로 돈까스 제공하는 가게들 특징이 처음에 돈까스 받으면 몇 조각 없어 아쉽다가도, 먹다 보면 한 조각 한 조각이 큼지막해서 엄청 배부르다. 심지어 모밀까지 시켰으니...



레몬 하이볼은 먹어본 사람이라면 아는 딱 그 맛이다.

먹었던 기억을 살려 평을 해보자면, 기다려서 먹을 만한 맛이였다. 지금 와서 맛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기는 어렵지만, 만족스럽게 먹었던 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기억난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진 않았어도 깔끔하게 맛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기억에 남는 건 안심이 살짝 많이 익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게 잘 익었던 것과, 와사비 대신 연겨자를 쓴 이유를 물었을 때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것. 답변은 기억이 안 난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궁금한데 찾아봐도 없다. 찾아보다 간장에 와사비 섞듯이 돈까스 소스에 연겨자 섞어 먹는 사람도 있다는 것만 알았다. 먹어본 경험으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와사비보다 맵기는 덜 매운데 기름진 맛은 잘 잡아주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와사비 주는 식당 가면 남기는 편인데, 연겨자는 더 없어서 못 먹었다.

어쩌면 가장 바쁘게 살아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태평하고 게으르게 살고 있다. 맛있는 것 먹고 마시고 기록하고 추억하고 이런 것 좋아하는데, 늘어지게 살 거면 기록이라도 제대로 하고 지내자는 생각으로 이번 주 화요일부터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다. 모바일 게임 빠진 김에 방송도 하는데, 예전과 달리 소소하게 보러 와서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생겨서 좋다.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도 생기고 생각도 많아지고 했는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 적어봐야겠다.

돈가스가 맞는 표기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돈까스를 일상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해 그냥 돈까스라고 적었다. 돈가스보다는 돈까스로 적었을 때 유입이 더 많겠지...